

무주반딧불축제 “내년에 또 만나요” 국내외 반딧불이 전문가들 초청

생태환경축제로서 친환경 실천 기준 제시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 폐막식이 14일 무주등나루운동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박찬주 사)반딧불축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방문객과 주민 등 5천여 명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무주군민합창단'과 국악예술단 '시엘', 무주청소년오케스트라 '이탄'의 합동공연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군민의 장 시상과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 하이라이트 영상 시청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군민의 장은 '문화체육장'에 이정숙 씨(63세, 무주읍), '공익장'에 이강우 씨(74세, 무주읍), '효행장'에 이재현 씨(67세, 무풍면) '애항장'에 재경무주군민회 김병구 씨(71세, 안양지)가 수상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올해는 바가지요금과 일회용품, 안전사고 없는 3무 축제에 더해 방문객을 배려한 축제 현장 곳곳의 변화와 시도로 지속 가

능한 발전을 기약했다”라며 “30회 축제에서는 반딧불축제가 담당히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생태환경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연특별시 무주로의 힐링여행”을 주제로 지난 6일부터 9일간 펼쳐졌던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는 ‘반딧불이 신비탐사’를 비롯한 ‘반디별 소풍’ 등 체험, 반딧불이 주제관’ 등 전시, ‘반디콘서트’ 등의 공연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친환경 실천 반디서약서 작성’, ‘축제장 내 대화용기 사용 인증샷 SNS 공유’ 등 친환경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며 친환경축제의 면모를 뽐냈다.

바가지요금·일회용품·안전사고 없는 ‘3무(無)’로 전국 축제를 변화시킨 주역답게 올해도 3무(無)의 정도를 걸으며 주목을 받았다. 사전 평가를 통해 엄정한 먹거리는 맛과 품질, 위생과 청결, 가격을 모두 만족시켰고 친환경 대화용기 사용은 분리배출 도우미와 용기 회수 부스 운영 등

으로 효과를 높였다.

축제 현장에서는 경찰, 소방, 의료 인력 외에도 1백여 명의 안전요원과 2백여 명의 반디프렌즈, 1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상주하며 안전과 편의를 도모했다.

어린이 동반 가족 방문객을 배려한 축제장 동선 조정(실내 체험장 운영, 신비탐사 출발지 및 셔틀버스 승하차장 변경)과 범퍼카 등 10여 종의 놀이기구, 포토 존을 갖췄던 어린이 전용 놀이공간(반디 키즈월드)은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꼽혔다.

주민들은 “반딧불축제가 내년이면 벌써 30회가 된다니 놀랍다”라며 “해를 거듭한 만큼 더욱더 성숙하고 친환경생태축제로서 본보기가 되는 축제라 찾아와 즐길 기대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1997년 ‘자연의 나라 무주’라는 주제로 첫선을 보였던 무주반딧불축제는 10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축제, 5년 연속 최우수축제, 5년 연속 명예문화관광축제, 2년 연속 대표 축제, 3년 연속 전북특별자치도 대표 축제에 선정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2025 반딧불이 국제환경심포지엄 개최... 4개국 참가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와 함께하는 2025년 반딧불이 국제환경심포지엄이 지난 12일 무주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개최됐다.

한국반딧불이 연구회(회장 남상호)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환경지표곤충 반딧불이의 효율적 보존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개회식과 1부 국외 반딧불이 연구 및 보호 활동 2부 국내 반딧불이 연구 및 보호 활동, 3부 종합 토론, 4부 반딧불이외의 만남(현장 관찰)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황인홍 군수를 비롯한 한국과 일본, 대만, 중국의 반딧불이 전문가들 물론, 환경 관련 단체 회원,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대전대학교 문태영 교수를 좌장으로 한 1부 연구 발표에서는 일본 명성대학 이광학부 스즈키 히로부미 교수가 “일본의 반딧불 보호 및 보존 활동”을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대만 선안생태건설팀 왕 이지에 대표 표는 “대만의 반딧불이 서식지 조성과



관리”를, 중국 연태 대학 생명과학대학원 곡강용 교수는 “반딧불이 연구, 보호 및 개발 이용 발전”에 관한 주제를 발표했다.

2부 국내 사례는 강원도 농산물원종장 곤충산업센터 석영식 센터장이 “곤충, 데이터 기반 미래산업”에 관한 내용을, 대전대학교 우다현 박사는 “한국산 반딧불이 연구의 서식지 계량학적 분석”에 관해 연구한 내용을 공유했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대전대학교 남상호 총장(한국반딧불이 연구회 회장)이 좌장으로 단상에 올라 앞서 발표된 주제들에 대한 전문가와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현안해결·국비확보 ‘원팀 행정’ 본격 가동

군수·부군수·국장·부서장 등... 중앙부처·국회 직접 방문 군민 숙원 해결 총력

장수군이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현안 해결과 국·도비 확보에 원팀 행정을 본격 가동해 총력전에 돌입했다.

최훈식 장수군수와 이정우 부군수를 비롯해 국장과 실무부서장이 직접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해 현안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등 군 전체가 발로 뛰는 행정이 본격화 되고 있다.

먼저 최훈식 군수는 지난 8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를 방문해 김윤덕 장관을 만나 장수군민의 오랜 숙원인 교통 인프라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최 군수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국도 26호선(진안 ~ 장수, 81.7억원) 사업의 예타 통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여기에 △국도 26호선(장수 천천 ~ 장계), △국도 13호선(장수 장수 ~ 천천), △국도 19호선(장수 장계 ~ 계북) 구간의 2차로 개량사업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며 교통사고 다발 구간과 지역 간 교통격차 해소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 군수는 이번 정부 국정과제



장수군이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현안 해결과 국·도비 확보에 ‘원팀 행정’을 본격 가동해 총력전에 돌입했다.

에 포함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 중심이 아닌 인구소멸지역으로의 이전이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장수군은 말산업 특구 인프라를 보유한 만큼 한국마사회 이전의 최적지임을 표명했다.

이정우 부군수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를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장수군 당위성을 설명하며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 농가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수군이 대상지로 선정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환경과관광과 산림과장 역시 중앙부대를 찾았다.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 △백두대간 장안산 역사숲 복원 사업의 2026년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박희승·인호영 의원실과 산림청을 방문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장수=교관호 기자

진안군, 귀농·귀촌인 5세대 9명 입주시작

진안군은 2025년도 추진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을 통해 귀농·귀촌인 5세대 9명이 새롭게 입주하며, 지역 인구 증가와 활력 회복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희망하우스’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대상자들에게 4년간 무상 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로 인해 안정적인 주거 기반 마련과 동시에 마을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총 1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5동의 빈집을 새단장 했으며, 5세대 모두 귀농 귀촌을 위해 진안군

을 찾았다.

입주민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쾌적한 집을 제공받아 큰 부담 없이 귀촌을 결정할 수 있었다”며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게 되어 설레고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진안군은 2019년 사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총 36세대 52명이 희망하우스를 통해 농지를 틀었으며, 그 과정에서 빈집의 효율적 활용은 물론 농촌 마을의 공동체 회복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기여해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 위촉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욱)가 군민 신뢰를 제고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군의회는 지난 12일 위촉식을 열고 학계와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7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했다. 위촉된 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의원의 결직·영리행위 검토,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준수 여부 확인, 의원 징계와 관련한 윤리특별위원회 지문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위원회 구성은 책임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의회의 의지를 반영,



의원들이 윤리 기준을 지키며 의정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동창욱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의회의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통

장수교육지원청, 학력 신장 역량 강화 연구 운영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곤)은 관내 희망한 초등 교원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학력신장 역량 강화 연구’를 지난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 4회기에 걸쳐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기초학력 보장법’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보장 시행계획에 근거하여, 교원의 지도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생 맞춤형 학력 신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연구는 장수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1층 에듀테크실에서 진행되며, 전주오송초등학교 정미진 수석교사가 강사로 나선다. 특히 “곱셈 오개념 지도 방법”과 “분수 단원의 맞춤형 보충지도”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오개념 사례를 알아보고, 효과적인 단계별 지도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세부적으로는 지난 11일에 진행된 2학년 곱셈 개념 이해와 지도 방법부터, 25일 3학년 곱셈 오개념 지도,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장수=교관호 기자

장수자본센터,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행사

사)장수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만호)에서는장수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숙자), 자원봉사단체와 함께 천천면 삼장 마을회관에서 83세 어르신을 위한 생신상 차려드리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장수군 지원사업으로 장수군여성단체협의회와, 자원봉사단체가 협력하여 11일 새마을운동장수군지회(회장 장동업), 새마을지도자장수군협의회(회장 정종근)가 자원봉사센터에서 마을회관에 전달할 쉼 카스테라빵을 직접 만들고 12일은 어르신들을 위한 생신상 음식(미역국, 불고기, 잡채, 전, 나물 등)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삼장 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정성껏 준비한 생신상과 함께 작은 생일파티를 열었다. 이날 생신을 맞은 어르신은 직접 손수 만든 음식과 케이크,꽃다발 선물 등을 받고 깊은 감동을 표했다.

/장수=교관호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